



카페만큼 서점과 도서관이 많다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문학 도시임을 자부하는 만큼 5세기가 넘게 도서전을 개최하고 있다. '책의 축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출발해 도시와 책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봤다.

In the Middle Ages, traders rolled books into Frankfurt in barrels and displayed them on street stalls in the city's first literary marketplace. Five hundred years on, streets stalls have turned into more than 7,000 exhibition stands, and booksellers and writers from a hundred countries arrive to promote their wares to nearly 300,000 visitors and thousands of journalists.

독일 프랑크푸르트 문학 기행

# Between the Pages



From October 6 to 10, the annual Frankfurt Book Fair will descend on Germany's second-largest metropolitan area with what is now known as the most important yearly event for the international book trade: a place to network, swap information and keep abreast of publishing trends and technology. The country nominated as Guest of Honor — this year, Argentina — has a unique chance to highlight its literary culture and heritage. (Korea was guest of honor in 2005, taking the chance to note that Koreans were using moveable-type printing long before Johannes Gutenberg.) Most of all, there is no better place to do a publishing deal, as a swarm of publishers, book agents, translators, multimedia buyers and film producers hunt for the latest in literature.

The first book market was probably held in Frankfurt not long after Johannes Gutenberg invented his printing press in the 15th century. It was the largest in Germany until it was overtaken by the Leipzig Book Fair in 1632, but regained its preeminent title when Leipzig became a part of East Germany when the country was divided.

The modern book fair was re-launched in Frankfurt in 1949 after the Second World War, when 205 exhibitors got together in the historic Paulskirche, one of Germany's most symbolic buildings. The Paulskirche still hosts the fair's most significant event, the ceremony for the Peace Prize of the German Book Trade. Since 1950, prize money donated by publishers is awarded to a writer or publisher committed to international understanding. Previous winners include internationally renowned writers Orhan Pamuk, Susan Sontag, Chinua Achebe and Václav Havel. The ceremony is broadcast on national television and traditionally attended by the German president and leading cultural figures.

**City of Literature** While the Frankfurt Book Fair is as big as it gets in publishing, it is far from the city's only literary distinction. In 1749, the birth of Johann Wolfgang von Goethe in a middle-class house on the Großer Hirschgraben, in what is now the old town, would give Frankfurt another enduring claim to literary fame. Goethe grew up here until his departure to study law; incidentally in Leipzig, where no doubt that other book fair supplied him with reading mate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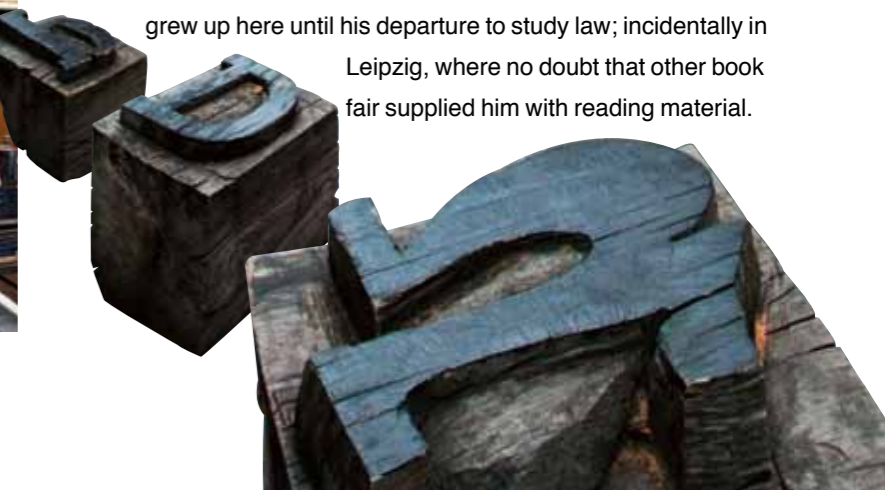
책이 죽었다고 개탄하는 주장을 반증하는 곳이 있다.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전을 개최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다. 도시 이름을 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연례 행사이며, 올해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를 통해 전 세계 출판 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출판계의 최신 동향과 기술을 확인하는 장인 것이다. 또한 매년 주변국을 선정해 그 나라의 책과 문화를 깊이 있게 소개한다. 올해는 아르헨티나인데, 2005년에는 한국이 주변국이었다. 당시 한국은 구텐베르크보다 훨씬 앞서 금속 활자를 사용했음을 알리기도 했다.

프랑크푸르트 최초의 도서 시장이 열린 시기는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술을 발명한 직후인 15세기경으로 추정된다. 독일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이 도서 시장은 1632년 라이프치히 도서전에 그 지위를 물려줬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라이프치히가 동독으로 편입되면서 옛 명성을 되찾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중단되었던 도서전은 1949년에 독일을 상징하는 건물인 프랑크푸르트마인 파울 교회에서 다시 개

최되었고, 이때부터 지금의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파울 교회에서 출판평화상 시상식을 거행하며 축제 현장으로서의 명맥을 이어 간다. 1950년에 제정한 출판평화상은 세계인의 이해 증진에 기여한 출판인이나 작가에게 출판인들의 기금으로 조성한 상금을 수여하는 것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오르한 파무크와 수전 손태그, 치누아 아체베, 바츨라프 하벨 등이 있다.

**문학의 향기가 가득한 도시** 프랑크푸르트가 지닌 문학 유산이 도서전만 있는 것은 아니다. 1749년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난 한 소년은 훗날 이 도시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문학의 명성을 안겨 주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지금은 구 시가지에 해당하는 그로서 히르슈그라벤에서 나고 자란 그는 법학 공부를 위해 라이프치히로 떠났다. 때마침 라이프치히 도서전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기에 괴테는 지속적으로 풍부한 문학의 자양분을 얻은 셈이다. 괴테는 그 후로도 자주 고향집을 떠났지만, 종착지는 항상 프랑크푸르트였다.



독일의 대형 서점 후겐두벨. 프랑크푸르트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다. 괴테의 도시답게 그의 이름을 딴 광장이 있으며, 광장에는 괴테 동상도 있다. 프랑크푸르트 인근 도시 마인츠에 위치한 구텐베르크 박물관. 재래식 식자판이 전시된 박물관 내 작업실(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Clockwise from top) Hugendubel is one of Germany's largest book retailers; a monument for German literary icon Johann Wolfgang von Goethe in Goetheplatz in the Frankfurt city center; the Gutenberg-Museum Mainz; the museum's atelier, where traditional typesetting is presen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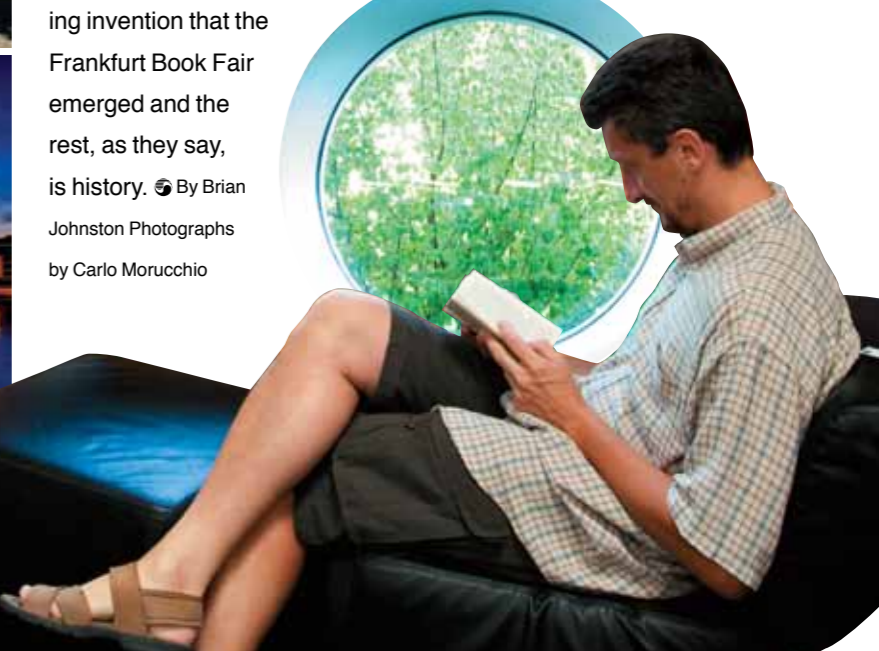
However, Goethe returned for several periods to what is now called Goethe House where, in the writing room on the third floor, literary pilgrims can admire the very desk where Goethe worked. Also on show is the puppet theater which Goethe recalled as one of his most treasured childhood possessions, and which featured in his novel *Wilhelm Meister's Theatrical Mission*.

Not all of Frankfurt's literary heritage is quite so lofty. A much-loved children's character in Germany, Struwwelpeter or Slovenly Peter, was the creation of a Frankfurt doctor in 1844 in a book of short stories about the consequences of misbehavior. The German children's classic was notably translated into English by American author Mark Twain and is celebrated with its own museum.

The Main River that flows through the city leads booklovers to more discoveries. On the riverbank lies Gerbermühle, once the summer residence of a Frankfurt banker, now restored as a country hotel. Goethe stayed here for a month in 1815 while in his late 60s, where he fell in love with a young woman named Marianne von Willemer and immortalized her in poetry. Now you can sit under the chestnut trees and take in city views as swans paddle along the river.

Meander upriver and the city soon gives way to farmlands and crooked medieval villages before the Main joins the mighty Rhine River. This strategic trading location is presided over by the town of Mainz, whose biggest attraction is the Gutenberg-Museum Mainz, devoted to native son Johannes Gutenberg. In the 1450s, Gutenberg built the first printing machine using moveable type, thus revolutionizing written communication. The museum displays two rare copies of the beautiful Gutenberg Bible, printed on parchment and still in their original bindings. A reconstruction of the Gutenberg press is occasionally demonstrated by guides. Not surprisingly, it was soon after this remarkable world-changing invention that the

Frankfurt Book Fair emerged and the rest, as they say, is history.  By Brian Johnston Photographs by Carlo Morucchio




그로서 히르슈그라벤에 있는 그의 생가는 현재 괴테 하우스라고 부르며, 일반 관광객과 문학 애호가들을 환영한다. 괴테 하우스 3층 집필실에는 그의 역작 <파우스트> 초고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집필할 때 사용한 책상을 그대로 전시하고 있다. 이 밖에 그의 또 다른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연극적 사명>에 등장하기도 한 허름한 인형 극장도 볼 수 있다. 이 장난감은 그가 유년 시절에 누이동생과 갖고 놀던 것이라고 한다.

괴테 이후로 프랑크푸르트에서 더 이상 특출난 문학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을 모르는 소리다. '더벅머리'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슈트루벨페터 동화를 쓴 정신과 의사 하인리히 호프만 또한 이 도시 출신이다. 3~6세 아동을 위한 이 근대 그림책은 마크 트웨인이 직접 영어로 번역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프랑크푸르트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마인 강은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발견의 기쁨을 안겨 준다. 강가에 자리한 게르베르뮐레는 한때 프랑크푸르트 은행가의 여름 별장이었던 건물 물을 목가풍의 호텔로 개조한 것이다. 1815년 60대였던 괴테

는 이곳에서 한 달간 머물던 중 마리안네 폰 빌레머라는 젊은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 이때 그녀를 위해 지은 대표적인 시가 바로 '은행나무 앞'이다. 세기의 사랑을 꽃피운 이곳에서 지금은 프랑크푸르트의 세련된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다.

강 상류로 굽이굽이 올라가다 보면 도시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지고, 중세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고풍스러운 마을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내 마인 강이 장엄한 라인 강과 합류하는 지점에 다다른다. 유리한 교역 요충지인 이 지점을 옆에서 지키는 것이 바로 마인츠 마을이다. 마인츠가 자랑하는 가장 훌륭한 관광 요소는 마인츠 태생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를 기리는 마인츠 구텐베르크 박물관. 이곳에서는 구텐베르크 인쇄기를 재현한 기계로 인쇄하는 과정을 보여 주기도 한다.

구텐베르크는 1450년대에 유럽 최초로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기를 만들었다. 구텐베르크의 이 놀라운 발명 후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당연한 수순인 듯 도서전이 탄생했고,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글 브라이언 존슨턴 사진 카를로 모루치오

매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열리는 무역센터 현장.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는 희귀한 고서적도 만나 볼 수 있다. 도서전의 백미인 출판평화상의 시상식을 거행하는 프랑크푸르트마인 파울 교회. 한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열렸던 장소이기도 하다. 마인 강의 선상 레스토랑(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프랑크푸르트의 국립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시민(맨 오른쪽).

(Clockwise from top) The Messe Frankfurt's Messegelände, where the annual book fair is held; antique books on display; Paulskirche, where the fair's Peace Prize is awarded; a floating restaurant on the Main River and the Frankfurt skyline. Reading at the German National Library (far right).



프랑크푸르트 정신의 산물, 파울 교회

# City Symbolism at Paulskirche

프랑크푸르트암마인 파울 교회는 종교를 초월한 공간이다. 민주주의를 상징하며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어도 했다. 지금은 도서전의 하이라이트 행사가 매년 이곳에서 열리고 있다.

**Paulskirche (or St Paul's Church) is one of Germany's most significant buildings and hosts the Book Fair's premier event, the presentation of the Peace Prize.**

프랑크푸르트암마인 파울 교회는 건물 형태가 동글며, 지붕 또한 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형태가 갖는 상징성 덕분에 파울 교회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곤 했다. 1848년부터 2년 동안 독일 최초로 자유 선거를 거쳐 선출한 국민의회가 새로운 통일 독일의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이곳으로 모였다. 하지만 의회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교회 건물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의 폭격을 피해 가지 못했다. 결국 교회 건물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지만 독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민주주의의 상징물로 남은 것. 덕분에 전쟁 이후 프랑크푸르트에서 최초로 재건축되는 영광을 얻었다. 재건된 파울 교회는 본래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 전시 공간과 독일의 국기, 독일 16개 주와 프랑크푸르트 도시를 대표하는 깃발을 내건 방이 생겼다. 파울 교회는

더 이상 예배당이 아닌 것이다. 종교계가 아닌 정치계에서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파울 교회. 그런데 정치계만큼 출판계에서도 의미가 크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기원이 500년 훨씬 이전이라고 하지만, 현재의 도서전에 가까운 형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났다. 그때 전시장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파울 교회인 것이다. 전문적인 전시 공간이 생기면서 프랑크푸르트 무역센터로 장소를 이전했지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과 파울 교회는 여전히 떼려야 뗄 수 없다. 바로 도서전 기간에 열리는 출판평화상 시상식이 이 교회에서 열리는 것이다. 도서전 최고의 행사로 손꼽히는 이 시상식에는 독일 대통령도 참석한다. 파울스플라츠 1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객을 받는다.

Started in 1789 as a place of Protestant worship and completed in 1833, Paulskirche became the cradle of German democracy. It was used as the seat of the first freely-elected German parliament from 1848 to 1849, when it met here to formulate a constitution for a newly united Germany. The Frankfurt Parliament was ultimately unsuccessful but, after being destroyed by allied bomber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long with many other historic buildings in the city, Paulskirche was the first building in Frankfurt to be reconstructed, thanks to its status as a symbol of

democracy and unity. The building was reopened exactly 100 years after the Frankfurt Parliament and remains iconic in German politics; former US President John F Kennedy chose it as the venue for a major speech during his visit to the city in 1963. The reconstructed building is substantially different from the original Paulskirche. The most notable feature of the oval-shaped interior is a huge circular mural showing a symbolic procession of the common people as representatives of Germany. Upstairs, a chamber is lined with the flags of Frankfurt, the 16 German states and that of Germany. Today, Paulskirche is used for various exhibitions, ceremonies and events, including the Peace Prize of the German Book Trade, awarded annually at the time of the Frankfurt Book Fair. Paulskirche is located at Paulsplatz 11 and opens daily from 10am-5pm.

책벌레들의 천국, 후겐두벨 서점

# A Bookworm's Delight

책의 도시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많은 책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일까. 프랑크푸르트 슈타인베르크에 위치한 후겐두벨 매장이자, 독일의 책벌레들은 대형 서점인 이곳으로 전부 모여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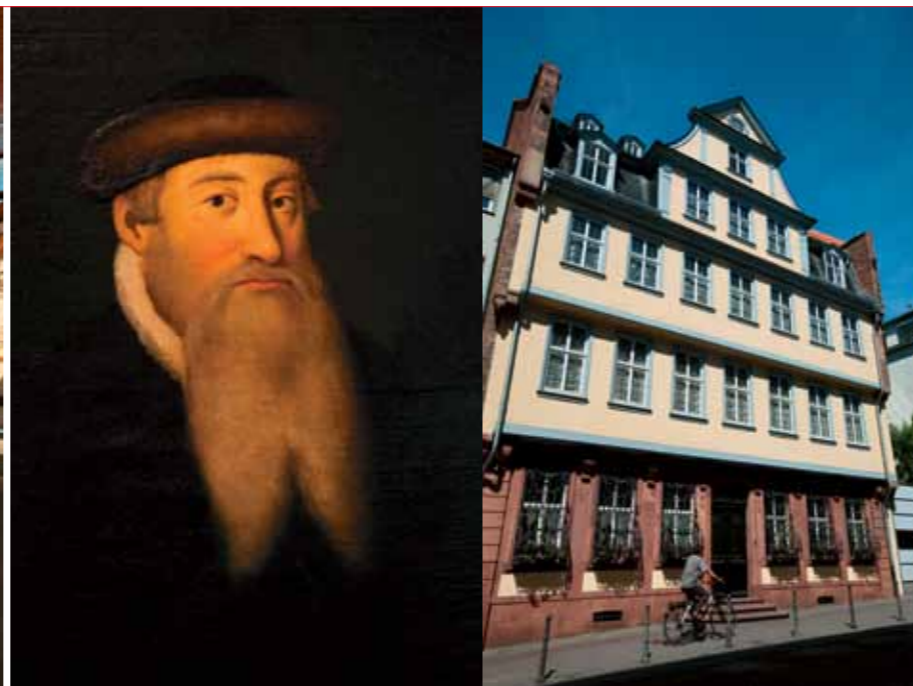
**Want to learn German, buy novels in Spanish or snap up the latest English-language blockbusters? Look no further than Frankfurt's best bookstore.**

후겐두벨은 독일의 대형 서점으로, 독일 전역에 수십 개의 매장을 두었다. 작고 오래된 동네 서점에 비한다면 개성이 부족하지만 개성이나 취향을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방대한 책이 자리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에는 후겐두벨 매장이 두 곳이다. 그중 4층짜리 건물 전체를 서점 공간으로 사용하는 후겐두벨 슈타인베르크점을 두고 사람들은 '프랑크푸르트 시민들이 밥 먹듯 드나드는 곳'이라고 한다. 실제로 일 년에 무려 100만 명 이상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한다. 도서 150만 권을 구비하고 있는데, 단지 책만 많은 게 아니다. 진열대와 진열대 사이에 소파 등의 앉을 공간을 마련해 놨다. 지하에는 널찍한 카페도 있다. 그래서 도서관처럼 무료로 책을 읽을 수도 커피와 함께 느긋하게 즐길 수도 있다.

독일인 만큼 대부분이 독일어 서적이다. 하지만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책도 제법 많다. 영어권 작품은 최신작을 포함해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후겐두벨에서는 유럽 책의 개성도 찾을 수 있다. 유럽 출판사는 양장본(洋裝本)을 고집하지 않는다. 대부분이 지장본(紙裝本)인 것. 덕분에 좀 더 가볍고 저렴한 책을 구입할 수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 아직 출간되지 않은 작품이 먼저 유통되기도 한다. 이는 자국보다는 유럽 시장에 집중하는 출판사들이 유럽의 출간 시점을 앞서 잡기 때문이다. 중고책 매장도 운영한다. 절판된 책일지라도 해박한 지식을 갖춘 직원들이 찾아 준다. 프랑크푸르트 슈타인베르크 12번지에 위치하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한다. 일요일엔 쉰다. [www.hugendubel.de](http://www.hugendubel.de) 참조.

Thanks to its moneyed, professional workforce, Frankfurt is well endowed with bookshops. A favorite among locals is Hugendubel, one of Germany's largest book retailers with locations across the country. The Frankfurt store spreads over four floors and claims 1.5 million books in its catalogue and over a million customers a year. Needless to say, it is often busy but, with various armchairs in hidden corners and a coffee shop in the basement, you can often find a quiet spot for browsing or to bury your nose in a good book. As well as a vast German-language selection and

materials for those wishing to learn the local language, Hugendubel has solid Italian, Spanish and French sections and a huge range of books in English, including many of the latest releases. Since European publishers often release books straight to paperback, those coming from the United States will be delighted to find cheaper, paperback versions of books still only available in hardback at home. Occasionally, you'll even find a book that hasn't yet been released in the United States, usually an American imprint specifically for export, or a British publisher's imprint of a forthcoming American title. Generally helpful and knowledgeable staff may also be able to assist with out-of-print books, as Hugendubel has a secondhand department. Hugendubel ([www.hugendubel.de](http://www.hugendubel.de)) is at Steinweg 12 and opens Monday to Saturday from 9:30am-8pm.



마인츠의 구텐베르크 박물관

# Home of the Printing Press

프랑크푸르트 인근 도시 마인츠에서 태어난 구텐베르크는 1450년대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했다. 프랑크푸르트에 책 시장이 생겨난 계기가 되기도 한 그의 업적을 기리는 인쇄 박물관이 마인츠에 있다.

**Travel 40km to the town of Mainz and you'll find a delightful old town and excellent museum celebrating the history of one of the world's greatest inventions.**

프랑크푸르트에 괴테가 있다면, 이웃 도시 마인츠에도 그에 못지않게 독일을 빛낸 위인이 있다. 바로 유럽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1398~1468)다. 1900년 설립된 마인츠 구텐베르크 박물관은 그의 일생은 물론, 그의 발명품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진품 그대로 복원한 구텐베르크 인쇄기. 활자를 찾아 식자하고 인쇄하는 과정을 재현해 보여 준다. 500년도 넘는 이 인쇄기는 예상하는 것보다 성능이 훌륭해 관람객의 감탄을 자아낸다.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성경책 180권 중 현존하는 건 49권뿐이다. 그중 두 권을 이곳에서 보유하고 있다. 귀히 다루어 만큼 방문 유리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박물관에는 고대 바빌로니아와 이집트 시대의 기록물, 이슬람의 목판 인쇄,

유럽보다 훨씬 앞선 중국, 한국, 일본의 인쇄물 등 동서고금을 막론한 다양한 문화권의 인쇄본이 함께 진열되어 있다. 그야말로 전 세계 인쇄와 책의 역사를 살살이 아우르는 것이다. 구텐베르크 박물관이 자리한 마인츠는 중세의 분위기가 풍긴다. 절로 걷고 싶은 골목, 목골 구조의 건물, 로마네스크 양식의 거대한 성당 주변에 있는 분수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바로 옆에 있는 성당과 박물관의 성물관(聖物館)에선 로마네스크 양식의 조각을 볼 수 있다. 프랑스 화가 마르크 샤갈의 스테인드글라스가 있는 성 슈테판 교회도 볼 만하다. 구텐베르크 박물관(www.gutenberg-museum.de)은 림프라우엔플라츠 5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화요일에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개관한다.

Frankfurt may have Goethe, but neighboring Mainz claims an equally significant German: Johannes Gutenberg (1398-1468), the creator of the European moveable-type printing press that revolutionized publishing. The Gutenberg-Museum Mainz, founded in 1900, celebrates the life of the man but, more importantly, the significance of his invention. A highlight is a demonstration by museum staff of type founding, typesetting and printing on a re-created Gutenberg press; the unexpected quality of the printed page often leaves audiences gasping. Other

exhibits are devoted to the history of printing and printing equipment. Gutenberg printed 180 copies of the Bible during the 1450s, of which only 49 remain. The museum is the proud owner of two copies of the Gutenberg Bible, which are worth millions of dollars and displayed under bulletproof glass. The pages of printed text are beautifully illuminated with multicolored figures of saints, animals and flowers, added by hand subsequent to printing. The museum displays other examples of writing from as early as the ancient Babylonians and Egyptians, as well as printed materials from different cultures through the ages, including printed matter from China, Korea and Japan that predates anything in Europe. Housed in a restored Renaissance building, the museum (www.gutenberg-museum.de) at Liebfrauenplatz 5 is open Tuesday to Saturday 9am-5pm and Sunday 11am-3pm.

문학 애호가들의 순례지, 괴테 하우스

# A Goethe Literary Pilgrimage

프랑크푸르트를 논할 때 요한 볼프강 폰 괴테를 빼놓을 수 없다. 유럽 문학계의 거장인 그의 생가가 프랑크푸르트 구시가지에 있다. 지금은 일반에 공개하는 괴테 하우스는 도시가 자랑하는 최고의 관광 명소로 통한다.

**The birthplace of Germany's most famous writer and a giant of European literature, Goethe House is one of Frankfurt's premier attractions for booklovers.**

괴테 하우스는 독일의 위대한 작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1749~1832)가 태어난 집이다. 그는 열여섯 살 때까지 줄곧 이 집에서 살다가 법학 공부를 위해 고향을 떠났지만, 주기적으로 이곳에 돌아와 작품을 집필했다. 이곳에서 완성한 작품은 괴테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것들로 기록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괴테의 집은 프랑크푸르트의 어느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심하게 파괴됐지만 그 이후 정교하게 복원됐다. 집필용 책상을 비롯해 이 집 가구들 중 몇몇은 괴테 가족이 직접 사용한 진품이다. 괴테의 아버지는 서재 창가에 서서 아들이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내려다보곤 했다. 괴테가 작품을 집필한 곳은 이곳 서재가 아니라 한 층 위에 있는 집필실이다. 바로 옆에 있는 전시실에는 괴테의 초기 작품이나

프랑크푸르트에 머물던 시절과 관련된 문헌과 원고들이 진열되어 있다. 괴테의 삶이나 작품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 집은 방문할 가치가 있다. 18세기 프랑크푸르트 중산층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실내 장식과 가구마다 신고전주의부터 바로크, 후기 로코코에 이르기까지 당시 유행하거나 공존했던 양식들이 다양하게 반영되어 있다. 1749년경 제작된 희귀한 천문 시계 같은 보물도 구경할 수 있다. 괴테 하우스(www.goethehaus-frankfurt.de)는 그래서 히르슈그라벤 23-25번지에 위치하며,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개관한다. 미리 신청하면 영어로 진행되는 투어도 할 수 있다. 바로 옆에 있는 괴테 박물관은 연말까지 휴관한다.

Goethe House was the birthplace of the celebrated German writer 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 who lived here until he left to study law at age 16, but returned for periods thereafter to pen some of his most famous works, including *The Sorrows of Young Werther* and the first manuscript of *Faust*. The house, like much else in Frankfurt, was destroye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but meticulously restored. Some of the furnishings — including the writing desk — are original Goethe family pieces. Goethe's father used to stand at the window of the library and watch

his son return along the street below, though it was not in the library but the writing room on the floor above where Goethe wrote. An adjacent exhibition room displays documents and manuscripts relating to these early works and Goethe's Frankfurt years. Goethe apart, the house is worth visiting for the fascinating insight it gives into middle-class life in 18th-century Frankfurt, with rooms decorated and furnished in the various styles of the time, from neoclassical to baroque and later rococo. Among the treasures is a rare astronomical clock created around 1749. Goethe House (www.goethehaus-frankfurt.de) is at Großer Hirschgraben 23-25 and opens Monday to Saturday 10am-6pm and Sunday 10am-5:30pm. English tours can be arranged in advance. Note that the adjacent Goethe Museum is closed until year's end for refurbishment.



대한항공은 프랑크푸르트로 매일 운항합니다.  
Korean Air flies Incheon ↔ Frankfurt daily.

● **찾아가는 길**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www.frankfurt-airport.com)은 프랑크푸르트 도심에서 남서쪽으로 12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한다. 프랑크푸르트 광역권의 교통 연합 시스템인 RMV(www.rmv.de)로 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 도심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독일 국철(www.deutschebahn.com)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기간에 맞춰 특가 승차권을 출시한다. 또한 도서전 입장권을 구매하면 RMV 이용이 무료다. 전시장 주변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는 셔틀 버스로 운항한다.

● **추천 숙박지** 프랑크푸르트는 숙박 시설이 아주 많지만 도서전 기간에는 미리 예약하는 게 좋다. 전시장 인근에 위치해 근접성이 좋기로는 뫼벤픽 호텔 프랑크푸르트 시티(www.moevenpick-hotels.com)가 으뜸이다. 래디슨 블루 호텔(www.radissonblu.com), 힐튼 프랑크푸르트 호텔(www.hilton.com) 등도 추천할 만하다. 호텔 예약 웹사이트가 많지만, 프랑크푸르트 관광청(www.frankfurt-tourismus.de)을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다.

● **2010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도서전(www.frankfurt-book-fair.com)은 10월 6일 개막해 10일까지 펼쳐진다. 초대권이냐 입장권을 소지해야 하며, 출판 관계자는 신분이 확인될 경우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일반 관람객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할 수 있다. 입장권은 평일 14유로(한화 약 2만 원), 주말 20유로(약 3만 원)다.

● **먹을거리** 프랑크푸르트는 국제 도시답게 훌륭한 레스토랑이 많기로 유명하다. 그중에서도 아펜토르 생케(www.affentor-schaenke.com)는 독일 전통 음식을 고수하는 음식점이다. 화려한 분위기를 선호한다면 실크(www.cocoonclub.net)를 추천한다. 실험적인 요리를 선보이며 스스로 '베드 레스토랑'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이 레스토랑에서는 목재 의자가 아닌 흰 소파에 눕다시피 앉아서 식사를 한다. 격식을 갖추지 않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훌륭한 독일 생맥주를 즐길 수 있는 곳도 있다. 작센하우젠 구시가지의 선술집들이다.

● **GETTING THERE**

Frankfurt International Airport (www.frankfurt-airport.com) is 12km southwest of the city. From the airport, S-Bahn fast trains (www.rmv.de) run frequently to the Frankfurt main station; there are also shuttle bus services. German railways (www.deutschebahn.com) offers a special book fair deal from any German railway station within 350km of Frankfurt. The Book Fair is held at the Messe Frankfurt's Messegelände in Ludwig-Erhard-Anlage. Those who purchase tickets get free use of public transport in the Rhine-Main area, which includes Frankfurt and the exhibition site. There is also a free shuttle bus around the grounds.

● **WHEN TO GO**

The 2010 Frankfurt Book Fair (www.frankfurt-book-fair.com) officially opens on October 5 (by invitation only) and runs from October 6 to 10. Accredited trade visitors have daily access. The public can visit on Saturday from 9am to 6:30pm and Sunday 9am to 5:30pm. Tickets cost 14 euros (US\$19) for the day or 20 euros (US\$27) for the weekend.

● **WHERE TO STAY**

Frankfurt has plenty of accommodations, but visitors should book well in advance during the Book Fair. Mövenpick Hotel Frankfurt City is adjacent to the exhibition site (www.moevenpick-hotels.com). Other hotels include Radisson Blu Hotel (www.radissonblu.com) and Hilton Frankfurt Hotel (www.hilton.com). A further 4,000 beds in private rentals, from single rooms to apartments, can be booked through Tourismus + Congress Frankfurt (www.frankfurt-tourismus.de).

● **WHERE TO EAT**

Frankfurt restaurants have an excellent reputation. Among them, Affentor-Schänke (www.affentor-schaenke.com) serves traditional German cuisine including apple wine. Some rhapsodize over French-influenced German classics at Gargantua (www.gargantua.de) in downtown.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germany.travel.

자세한 문익는 한진관광 으로 문의바랍니다.  
More travel information is available from HANJIN TRAVEL  
www.kaltour.com



프랑크푸르트 무역센터  
Messe Frankfurt's Messegelände